

중기 성장기반 '지식산업센터' 전주에 첫삽

시,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기공식... 2020년 완공 예정

전주시 팔복동 첨단벤처단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이 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에는 영세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입주 공간과 함께 회의실, 식당 등의 기업 지원시설과 근로자편의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시는 17일 전주시 팔복동 이곳 신축 현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의장과 강동화 부의장을 비롯한 전주 시의회 의원, 양근의 전주벤처기업촉진지구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 지역주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오는 2020년 2월까지 총 사업비 268억원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6층의 연면적 1만2,211.9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영세기업을 위한 임대공간의 경우 대형 중장비 사용이 가능한 입주공간을 포함한 66호실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향후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연구개발업과 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 업종은 물론 기계 관련 제조업 등 60여 기업이 입주해 지역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시의 소규모 영세기업과 창업기업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전주에 유치하기 위한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제3차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역으로 선정돼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국비 160억을 지원받게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자금부족과 공장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의 성장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식산업센터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가는 전북도 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17일 전주시 팔복동 이곳 신축현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의장과 강동화 부의장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의원, 양근의 전주벤처기업촉진지구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 지역주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전북푸른학교, 전국장애 청소년독후감 우수학교상

제11회 전국 장애 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에서 전북푸른학교(교장 최춘규)와 학생 5명이 최우수상 등과 함께 우수학교상을 17일 수상했다.

'전국 장애 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는 소외되기 쉬운 장애 아동·청소년이 독서를 통해 장애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고자 매년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서 박현주(초5)학생이 최우수상, 조하늘(중1)·박지원(중3)·김동호(고1)·황보영(고1)학생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전북푸른학교는 각 장애영역별로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학교에 수여되는 단체상으로 '지체장애부문 우수학교상'을 3년 연속 수상하며 감동을 전했다.

전북푸른학교는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운영, '학교 밖 도서관' 운영 및 자체적으로 실시, '푸른독서 끝판왕' 대회 준비 등과 같이 학생들의 독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흥미와 관심, 수준에 맞는 독서교육을 실시하며 책읽기와 교내 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시행, 수준별 독서노트 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각종 독후감 및 글짓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현주 학생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대회를 준비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나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도내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5년간 701건

민주당 이재정 의원 '이송거절 현황' 서

전북지역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이송거절은 701건이었다.

119구조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급한 상황이 아닌 단순 질환자나 술에 취한 사람 등에 대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술에 취해 119에 이송을 요청한 이들이 전북에서만 336건이었다.

도내 이송거절 사유별로는 주취자가

가장 많았고 만성질환자의 병원 이송, 병원이나 자택 이송 요청이 뒤를 이었다.

이재정 의원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야하는 구급차들 술 마시고 콜택시 부르듯 부르는 양심 없는 사람들로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면서 "구급차는 반드시 위험에 처할 때만 불려야 한다.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엄격히 처벌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송거절 701건은 전국 광역단체 중 6번째에 해당하고 서울 622건(7위)보다 많은 수치다. 가장 많은 이송거절은 경기 1091건이었다. /뉴스시

전주시 재난대응 매뉴얼, 전국에 소개

안전한국훈련 종합토론회서 우수사례 발표

국제안전도시인 전주시의 재난대응 매뉴얼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전주시는 1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종합토론회'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표해 훈련기획과 훈련실시, 성과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에 실시된 이번 훈련 기관평가에서 전국 시·군·구 단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종합토론회는 올해 훈련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분야

별 훈련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체 참여기관 담당자와 중앙평가단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올해 안전한국훈련에서 '화재·폭발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재난 유형으로 정하고, 덕진구 팔복동 소재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전라북도과 덕진소방서, 덕진경찰서 등 23개 기관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스색·구조 활동 △현장통합지원본부·응급의료소 가동 △지휘관 이양 등 시나리오에 따른 재난 대응 훈련

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시는 이번 훈련 기간 동안 민간기업 참여·시민체합한 확대 운영 등 모든 훈련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했으며 현장에서 훈련 참여자들의 숙달정도가 높아 매뉴얼에 따른 조치 사항들이 정확하게 이행한 점이 수범사례로 소개됐다.

남종희 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실전과 같은 재난대비 훈련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이를 계기로 재난대응 선도 지자체의 위상에 맞게 보다 내실 있고 안전한 전주 만들기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좋은 초록 있으면 소개시켜줘'

전주시민원탁회의 개최...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 대안 제시

제7회 전주시민원탁회의가 17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전주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원탁회의의 주제는 '가든시티 전주 시민대토론회, 좋은 초록 있으면 소개시켜줘'로, 참석한 시민들은 열심현상과 미세먼지가 없는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은 전주를 미세먼지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시원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이다.

가 된다.

가장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한 'BEST 시민참여상' 수상자는 일일명예시장으로 위촉돼 시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울 때 시민들은 도시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천만그루 가든시티'는 도시 자체가 시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사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숲과 정원을 가꾸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건강을 지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회복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이건 부담하지 않습니까?" 전북대학교 총장선거의 부담함을 일리는 긴급 기자회견이 17일 전북대학교수당에서 실시된 가운데 총장임용후보추천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규재, 양오봉, 김동원, 김성주, 최백렬, 송기춘교수)

자동차분야 생산직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맞춤형 일자리 행사를 통해 구직을 원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청·장년 구직자를 돕고 나섰다.

시는 1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청·장년 구직자와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맞춤형서비스인 '2018년 제7회 생산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팔복동 산단에서 자동차 안전벨트를 제조하는 (주)세원세이프티와 (주)우주테크 등 2개 업체와 청·장년층 구직자 60여명이 참여해 현장면접을 했다.

특히, 이날 면접을 진행한 2개 업체는 지난해부터 공장을 가동한 신산업체로, 근무환경이 깨끗하고 생산라인도 80%이상 자동화돼 업무환경이 좋

고 통근버스로 운행하는 이점 때문에 많은 구직자가 몰렸다.

(주)세원세이프티와 (주)우주테크는 이날 면접을 통해 총 3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현장면접에 참여한 구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가 참여기업 구인 조건에 맞는 구직자 개인별 상세한 맞춤형상담을 통해 이력서를 사전에 접수받은 후 서류합격자들에게 면접시간을 개별 연락해 현장면접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참여기업과 구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상담과 현장면접 등 일자리매칭사업으로 이뤄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최근 3년간 매년 총 10회 이상 200명 이상의 채용을 성사시켜왔다.

시는 오는 10월과 11월에도 대규모 취업박람회에 비해 예산대비 효율이 높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중·장년층,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청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봉정 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청·장년 구직자의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구인난은 여전히 지속되어 있다"며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인 인원이 5인 이상인 업체는 전주시청 일자리지원센터(063-281-2812)로 구인 신청을 하면 집중적인 맞춤형상담과 상시 현장면접을 통해 인력채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자연생태관 추석연휴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자연생태관이 추석연휴를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자연생태관은 오는 22일~23일, 25일~26일 4일간 가족단위 시민과 귀성객, 관광객이 생태도시 전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특별 전시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주자연생태관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동안 추석 당일인 24일에만 문을 닫는다.

이번 연휴 기간 자연생태관은 볼과 이톤과 콘스네이크 등 대형 구렁이, 육지거북, 세계희귀곤충도마뱀을 전시하고, 반딧불이·닥터피쉬 체험과 가족 영화상영 등을 진행한다.

추석연휴기간 운영되는 프로그램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자연생태관 홈페이지(ecomuseum.je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영화감독 정운철 초청 멘토링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2018 인생나눔교실'의 영화인멘토링 행사로 19일 영화감독 정운철을 초청한다.

이번 행사는 육군보병학교에서 진행하며 3개 부대 200명의 군장병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재단은 지난 7월 4일 완주 군부대에서 영화제작자 차승재 씨를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번 영화인멘토링은 그의 독한 멘토링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로써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정 감독은 "불안한 청춘을 겪는 장병들이 독한 실패담에서 나오는 인생의 한 수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